

## 일본의 양계업

### 산란계

#### 도요쿄(東京)시민 1인당 계란 1일 1개 이상 섭취

도요쿄난업협회 소비촉진조사부가 「계란 페스티벌」을 방문한 소비자(273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퀴즈·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퀴즈에서는 「상미(賞味, 맛을 유지하는)기간이 지난 계란의 섭취방법」을 묻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충분히 가열하면 먹을 수 있다), 「삶은 계란은 산란 후 며칠이 경과한 계란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산란 후 1주일), 「일본인은 1년간, 평균 몇 개 정도의 계란을 먹고 있을까」(약 330개), 「계란에 함유된 성분으로 수험생의 기억력을 높이고 노인의 치매에 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코린), 「암탉은 부화 후 며칠 정도 지나면 알을 낳을 수 있을까」(130~150일)의 5가지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 중 1인당 연간 계란소비량의 정답률이 45.5%로 낮았지만 다른 문제의 정답률은 약 80% 정도였다.



윤 병 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전임연구원  
농학박사

설문조사는 계란의 이용에 관한 3가지로 (1)「계란을 어느 정도 먹고 있는가?」에 대하여 「1일 1개 이상」으로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45%로 예년과 같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2일 1개」 34%, 「3일 1개」 13%로 과거 5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 (2)「구입 시 중요시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상미기간」「가격」「산지」「브랜드」의 순서로 답하였고, (3)「가정에서 어떠한 요리에 사용하는가?」에는 예년과 같이 「계란 프라이(20.8%)」「찐 계란(18.5%)」「밥에 비벼먹기(16.7%)」로 3위까지의 답변이 과거 5년간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계명신문 발췌).

#### 일본계란거래센터(JET) 설립

일본계란생산자협회는 계란의 원활한 유통, 수급, 가격의 안정·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회원간의 계란거래를 추진하는 「주식회사일본거래센터, JET」를 6월 1일 설립하여 10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였다. 새롭게 설립되는 JET는 회원 간에 거래되는 계란에 대하여 독자의 품질자주확인제도를 정해 생산과잉 시에는 구입처가 되고 부족 시에는 판매처가 되는 지원기능을 발휘하여 수급이나 판매량을 조절한다.

JET의 사업목적은 (1)회원간의 계란수급조절을 위한 계란거래 (2)가공회사 등에 안정공급 (3)해외로의 수출입 (4)기타 일본내 계란의 원활한 유통과 수급, 가격의 안정·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직은 이 협회의 전액출자로 주식회사를 만들고, 주주총회, 임원, 평의원 등의 집행기관에서 거래의 평등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한다. 가입금은 10만 엔(¥), 회비는 월 1만 엔이고 거래수수료는 계란 1kg당 3엔(파는 쪽 2엔, 사는 쪽 1엔)이다.

거래에 있어 독자적인 품질기준, 거래규격, 거래세칙을 준수하고 JA전농의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하며 거래가 확인될 때까지 서로 상대를 모르고 거래가 성립되어도 당사자만이 상대방을 알 수 있는 폐쇄거래를 철저히 지킨다. 가공업자와의 거래는 JET가 판매자가 될 예정이며 이밖에 파는 쪽, 사는 쪽, JET의 거래상 책임 등을 명확하게 하여 규칙준수 의식이나 업계의 신용을 향상시키기로 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특 계

### 저소비전력 계사조명용 LED 전구 발매

전농축산서비스(주)는 소비전력이 매우 작고 환경에도 좋은 LED(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한 계사조명용전구형 램프 「꼬꼬램프」를 4월 1일부터 발매하였다.

사료가격의 폭등으로 생산비용의 저감이 필요한 축산 생산현장용으로 농축산서비스(주), 샤프(주), 로알라이팅(주) 3사가 백열전구의 대체품으로서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샤프가 고휘도 LED 제조, 로알라이팅이 LED램프 제조를 담당하고 전농축산서비스가 판매한다.

이 상품의 특징은 다음의 9가지로, (1)140와트 백열전구와 동등한 조도로 소비전력과 CO<sub>2</sub> 배출량은 약1/10 수준, (2)아연이나 수은을 포함하지 않은 「RoHS : 전자·전기기에 특정유해물질의 사용제한에 관한 EU의 규정」에 맞춘 친환경제품, (3)수명은 백열전구의 약 40배인 4만 시간 이상으로 전구의 교환 등 유지관리 불필요, (4)조광이 가능하여 병아리의 성장이나 작업에 맞추어 조도의 조정가능, (5)닭의 성숙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전구 색을 채택, (6)백열전구나 형광등에 비하여 발열이 적음, (7)저온(영하 20℃에서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음, (8)외형 소재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으로 쉽게 깨지지 않음, (9)백열전구의 표준소켓(E26)에 그대로 사용한다. 연간 72만수의 육계농장에서 실시한 실증시험에서 「꼬꼬램프」를 1동에 48개씩 설치하여 종래의 백열전구와 비교한 결과 생산성적의 차가 거의 없고 소비전력은 백열전구의 1/8(86% 감소)이었다.

초기에는 전구 값이 비싸지만 5년간 사용한 경우의 계산으로 전구 값과 전기료로 약 1,800만 엔(¥), CO<sub>2</sub> 발생량은 396톤이 삭감되고 설치비용은 1년 정도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한다(계명신문 발췌).

### 폐사한 백조에서 시바이러스 검출

4월 28일 아끼다깡(秋田縣)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백조의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 의심으로 동물위생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의 H5N1형으로 확인됨에 따라 닭으로의 감염방지를 위해 양계관계자들에게 충분한 경계와 방역체계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었다.

아끼다깡의 직원은 21일 도와다(十和田)호에서 죽은 백조 3마리와 쇠약해진 1마리를 동물위생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현재 이 밖에 다른 야생조류의 대량 폐사나 양계장으로부터의 이상한 징후를 보이는 닭이 있다는 보고가 없고 폐사한 백조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에 양계장이 없는 상태이다.

농림수산성은 28일 도와다 호수 주변의 아끼다,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3깡은 산란계와 육계의 대군 사육지로 양계장에 대한 긴급지도를 요청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야생조류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가축위생연구소를 통하여 양계장 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야생조류 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조망의 설치, 사양관리기준 준수철저 등을 지도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양계**